

인문학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서 정 민 |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

현재의 상황을 인문학의 위기라고 전제한다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도 '위기론'의 장본인인 인문학자들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하며 정부의 인문학 육성책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와 지적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는 별도의 대학 차원, 작게는 학과나 단체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문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쳐 쓸데없는 우월의식을 갖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반성의 자세로 전문성과 함께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위기로 여기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쟁점포토

I. 인문학, 정말 위기인가

인문학 위기론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그런 말이 들려왔고, 『인문학의 위기』나 『인문학의 위기와 전망』같은 책도 나왔다. 그 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간헐적으로 이어지던 인문학 위기론은 작년 고려대 인문대학 교수들과 전국 인문대학 학장들의 성명을 기점으로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올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향후 3~5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인문학 지원 프로젝트인 이른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중 인문 분야 문제연구는 정부에서 연구과제를 공모한 뒤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좀 구별되지만, 크게는 인문학 범주에 속하는 인문학자의 한 사람으로 정부가 인문학 육성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늘린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정말로 지금이 인문학의 위기인가, 대체 상황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문학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과연 이 문제가 연구비 지원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인가 등등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일간지의 사설에서는 이번 정부의 인문학 육성책을 놓고 “발상부터 근시안적이고 비인문학적이며, 인문학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표현에 썩 동의하지 않으며, 인문 분야를 전공하려는 학생이 없어 후속학문 연구 세대가 끊길 위험에 처한 것이 위기라면, 서구처럼 대학교육 과정에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인문학 교양 필수 과목을 늘리고 다양화할 것을 권”하고 있다.

정부의 발상이 ‘비인문학적’이라는 대목이 특히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필자 역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인문학의 위기가 연구비가 부족해서 초래된 것으로 비춰질 소지도 있다. 또 전공자가 줄어 학문의 맥이 끊길 처지이기 때문에 인문학의 위기라 하는 논리(사실 이것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례이다)에는 필자도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 그 같은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위기의 근본적 이유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야 정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가, 또 인문학자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마땅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을 때 침묵했던 인문학자들인지라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냉소도 들린다.

II. 위기라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쨌든 지금이 인문학의 위기라고 전제한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 우선 필요한 것이 인문학자들의 ‘자기반성’이다. 인문학이 정말 위기라고 한다면 그 원인이 먼저 인문학계 내부에 있었음을 고백해야 한다. 즉, ‘내 탓이요’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힘이 드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인문학이란 것이 사람의 생각과 품성을 다루는 학문인지라, 다른 학문 분야보다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기 성찰이 앞서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인문학 육성책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이번처럼 정부에서 인문학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나눠주는 것은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연

구비를 받는 연구과제가 적어서 인문학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인문학 역시 자기가 좋아서 연구하는 것이며, 다른 분야에 견주어 그다지 많은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또 이번 정부의 지원은 당장은 약일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독이 될 수도 있다. 200억 원의 지원을 받고도 계속 위기론만 들먹인다면, 이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인문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원생이나 아직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한 시간강사나 연구원들은 사정이 다르겠으나, 전임교수들의 사정은 그다지 좋거나 배고프지 않다. 개별적인 연구과제 수행은 나름대로 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그 예산이 '나눠 먹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연구후속세대가 줄어드는 것이 걱정이라면, 정부의 지원은 학부보다는 대학원에 집중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방면에 지원을 집중해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온라인을 통한 지식망, 정보망의 구축이 시급하다. 필자 주변에는 한국사 전공자들이 여럿 있다. 그들이 연구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가끔 부러울 때가 있다. 이들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같은 기본자료들을 온라인상에서 쉽게 검색한다. 조선시대 각종 문집도 마찬가지이고,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종 언론기사도 수시로 활용한다. 독립운동사 관련 자료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예전 같으면 소장처를 찾아가 일일이 넘겨가며 찾아내야 했던 자료를 컴퓨터 앞

에서 똑딱 정리한다. 이렇게 해서 아껴지는 시간과 비용은 헤아리기 힘들다. 물론 이렇게 구축된 DB는 한국사는 물론 한국학 전반에 두루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예산과 인력만 확보되면 한국학뿐 아니라 인문학 전반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굵직한 사업이 무궁무진하다. 이것은 몇몇 연구자나 연구진의 분산적인 작업으로 될 일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 우리 인문학계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연구결과물 몇 편이 아니다.

물론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원생을 비롯한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여건이 좋아지고, 연구의욕도 높아질 수 있다. 이것 역시 중요하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앞서 제시한 DB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면 된다. 인문학 DB구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난해한 고문과 한문 자료를 다른 분야 전공자들이 손대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코 단순작업이 아니다. 원자료를 직접 다룬다는 것은 신진연구자

들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인문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분산적인 다수의 연구보고서보다는 집중적인 몇 개의 DB화 작업에 투여되는 것이 좋으며, 이 사업에 신진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문학의 길이 힘들다고 해서 일부러 힘든 길만 가야 할 필요는 없다. 비좁고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원스레 뚫린 길을 찾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많지 않겠는가. 우선 제대로 길을 뚫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위를 걸거나 달리도록 바탕을 다지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온라인을 통한 지식망·정보망의 구축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지금 우리 인문학계에 시급히 필요한 것은 연구결과물 몇 편이 아니다. 인문학 육성을 위한 정부의 예산은 분산적인 다수의 연구보고서보다는 집중적인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 투여되는 것이 좋으며, 이 사업에 신진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뿐 아니라 대학 차원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인문학 위기론을 외치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인문학자들은, 과연 그들이 소속한 대학 당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까. 소속 대학에 대해서는 아무런 요청도 못한 채 눈치만 보면서 정부에만 그 책임을 돌렸던 것은 아닐까.

CEO 총장이 환영받는 현실에서 앞으로 인문학 전공자가 대학총장에 오르는 점점 쉽지 않을 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최근 공학자 출신인 서울대 신입총장이 올해 신입생 전원에게 본교 대학문학상 수상작을 모은 시집을 선물하기로 하면서, “시집 선물이 위기를 맞고 있는 인문학의 중흥을 위한 신선한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은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본부의 지원만 기다릴 수만도 없다. 학과나 단대 차원에서라도 자구책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관심을 끌고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막말로 ‘분필과 칠판만 있으면’ 인문학 강의가 가능한 시대는 지나도 한참 지났다. 하지만 그 같은 인식은 아직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어쩌면 이것이 과거 많은 대학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인문학 학과를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최근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해 세계 각국의 인문학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업방식인 이른바 ‘디지털 인문학’을 추진하는 대학도 있다. 예컨대 어느 영어영문학과 대학원에서는 영국의 인문기술통신연

구소와 제휴해서 대학원생들이 영문학과 관련된 학술자료를 실시간으로 열람하며 수업할 수 있는 인터넷망과 컴퓨터실을 구축했다고 한다.

Ⅲ. 인문학의 특성에 대한 새삼스러운 이해

인문학 관련학과의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 들고, 들어왔다 해도 전과로 빠져 나가며, ‘경쟁력’이 없다 해서 과명이 바뀌기도 하고, 아예 학과가 없어지기도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인문학의 위기인가?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붙어야 한다. 현재 인문학 관련학과 및 교수·학생의 수가 부족한가. 지금의 학과·교수·학생으로는 인문학의 발전이 어려운가.

만약 인문학 관련학과의 재학생들이 수업과 지도를 받으면서 인문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면 교수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5%의 학생이라도

인문학자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다면 상황은 희망적이다. 어차피 인문학은 인력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학문이다. 목적이야 어떻든 제 발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별다른 흥미나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인문학자들의 강의와 지도야말로 어찌 보면 인문학 위기의 주범이 아닐까.

제법 오래된 일이지만, 어느 대학에서 교수수첩을 만들 때 단과대 순서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자 종전까지 가장 앞에 나왔던 인문대

인문학 관련학과의 신입생이 해마다 줄어 들고, 전과로 빠져 나가며, ‘경쟁력’이 없다 해서 과명이 바뀌기도 하고, 아예 학과가 없어지기도 한다. 인문학 관련학과의 재학생들이 수업과 지도를 받으면서 인문학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교수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문학은 인력의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는 학문으로, 목적이야 어떻든 학생들에게 별다른 흥미나 감흥을 주지 못하는 인문학자들의 강의와 지도야말로 어찌 보면 인문학 위기의 주범이 아닐까.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한다. 앞에 나오는지 뒤에 나오는지를 갖고 문제 삼으려는 발상은, 마치 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차별을 연상케 한다. 학문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이야 백번 좋은 일이지만, 쓸데없는 우월의식은 오히려 학문을 고립시킨다.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존경해 주기를 바라는 권위의식은 대화의 단절을 가져온다. 학생들은 선생을 보면서 배운다. 그들이 스승으로부터 인문학의 체취를 느끼는가. 아니, 최소한 그들로 하여금 인문학의 매력에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가르치는가.

인문학 서적들은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출판관을 꺼리는 풍조도 인문학 위기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제오늘의 일인가. 이미 수십 년 전에도 인문학 서적은 잘 팔리지 않았는데도 인문학 위기를 운운하지는 않았다. 정말로 인문학의 출판 사정이 옛날보다 악화되었다는 근거가 있는가.

물론 그동안 인문학자들이 전문적인 연구에만 매달리고 대중들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지적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인문학의 위기를 초래한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학문 분야나 그렇듯이 인문학도 전문성과 대중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따진다면 전문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점에 나가보면 대중적인 인문학 서적들이 넘쳐난다.

사실 인문학이 발전하려면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부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인문학 관련과목을 강화하자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중·고등학교의 역사교육이 강화된다고 해서 학생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강화될수록 시험의 비중도 높아지고 그만큼 외울 것도 많아진다. 대학 신입생들에게 물어보면 상당수가 역사를 지긋지긋한 암기과목으로 기억한다. 교사들 탓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주어진 시간에 짜여

진 진도를 밀고 나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던져주는 대로 머리에 넣기에 바쁜 과목에서 학생들이 무슨 흥미를 느끼겠는가. 이런 교육은 역사지식을 채워넣는 데는 유용하겠지만 역사의식을 높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작년 말 서울대에서 올해 전공 지원을 받아 보니 독문·언어·종교학과는 지망생이 단 1명도 없는 반면, 영문과는 64명 중 40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다른 대학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리 없다. 사정이 이렇진대 제 아무리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실습실을 확충하며 장학금을 확대한다 한들 인문학계의 현실은 앞으로도 크게 호전되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흔히들 말하지 않았던가. 인문학은 ‘춥고 배고픈’ 학문이라고 말이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풀이할 수 있다. 인문학을 하면 돈을 벌기 어렵다는 자조일 수도 있고, 인문학을 하려면 돈과 거리를 뒤야 한다는 경계일 수도 있다. 일부러 고생을 자초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어차피 인문학은 추위와 배고픔을 감수하는 것을 학문하는 자세라 자랑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인문학계의 풍토도 예전 같지 않다. 한때 인문학계에서는 회갑이나 정년을 맞은 은사나 선배를 위해 후학들이 기념논총을 엮어 헌정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런 관례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념논총에 실린 논문은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록을 꺼린다. 또 마지못해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했던 것을 재탕해서 실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오랫동안 맺어온 인간적·학문적 인연도 연구업적 인정 여부에 맥을 못 추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정부의 지원만 촉구하기에 민망한 인문학계의 씩씩한 모습이다.

지금 인문학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위기라면 위기고 기회라면 기회다. 위기라고 걱정하니 관심도 높아지고 지원도 뒤따른다. 그런 점에서 위기는 기회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관심과 지원을 받고도 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한 채 계속 남의 탓만 한다면 그때는 정말 어려워진다. 그런 점에서 기회는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이기도 하다. 대학
교수

서정민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대학원 신학연구과에서 수학하였으며 연세대 대학원 신학과에서 한국교회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 및 연합신학대학원 교회사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으로 재임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일기독교관계사연구』, 『일본기독교의 한국인식』, 『언더우드家 이야기』, 『한국교회논쟁사』 등이 있다.

